



문 : 아이 들을 둔 농촌 주부입니다. 저는 더 낳고 싶은데, 남편은 그만 낳고 합니다. 아이들은 형제 많은 집에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틀린 생각인지요. 그리고, 가족계획은 꼭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부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만족스러운 일이며 인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이나, 세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때 우연히 생기는 대로 맡겨 둘 수는 없다.

서기 원년, 지구상의 총인구는 2억 5천만 명으로 추정되며 그 두배인 5억 인구에 달하게 될 때까지는 1천 6백년이란 장구한 시일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어 10억의 인구가 되기에는 2백 30년이, 20억의 인구가 되기에는 1백년이 소요되었으며, 이 계산에 의하면 2000년대에는 70억의 인구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다산다사의 인구형태를 나타내던 시대에서, 근대 문명과 의학의 급속한 발달에 의해 사망율이 감소되고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른 인구폭발 현상을 나타내게 되면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공업화가 지연되고 빈곤과 질병이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구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잘먹고, 잘입고, 잘살

고, 교육수준을 높이고, 의료혜택을 골고루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 가. 가족계획이란 무엇인가

가족계획이란 단순히 인구 억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 행복한 부부관계 속에서 원하는 수의 아기를 원하는 시기에 낳아 좋은 환경속에서 건강하게 양육하고 보호하며, 둘째, 인구와 자원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임증 환자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임신을 도와주는 것도 가족계획의 한 분야라 할 수 있다.

### 나. 우리나라 인구문제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크게 인구의 증가와 인구의 도시집중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초 연간 인구증가율은 3.0%였으나 정부의 인구억제정책과 민간인의 협조로 연간 증가율이 1.9%로 떨어져, 1988년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으로 추정되고 1.5%로 떨어뜨린 경우 2천년까지 5천만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 다. 인구증가와 관련된 문제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 식량사정이 어려워진다.
3.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4. 환경오염을 촉진시킨다.

5. 자원을 고갈시킨다.
6. 사치악이 드러난다.
7. 주택난을 격화시킨다.
8. 교육의 질을 저하 시킨다.
9. 인간 생활의 질을 저하 시킨다.
10. 교통난이 심화된다.

라. 임신 증절이 모체에 미치는 영향

인공 유산으로 인하여 모체는 자궁천공, 출혈, 골반내 감염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신 중반기에 유산시키는 경우는 전반기 보다 3~4배 정도 높은 합병증의 발병율을 나타낸다. 또한 인공 임신중절이 있는 경우에는는 습관성 자연유산과 미숙아 출산율도 증가된다.

마. 가족계획은 왜 해야 하는가

가족계획은, 물론 인구 억제를 위하여 반드시 행해져야 하나, 어머니와 자녀의 건강을 보호하고 튼튼한 자녀를 낳아 좋은 환경과 교육시설에서 양육하며, 많은 식구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또한, 가족계획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도모하며 이에 따른 생활의 여유와 행복한 결혼생활 그리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받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인간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울지부부속의원장 이증범박사〉

문화토픽

루드밀라 남 주연의 “카르멘” 막 오른다

서울오페라단이 창단 15주년 25회 정기공연으로 죠르즈 비제(Georges Bizet)의 4막 오페라 “카르멘(Carmen)”을 오는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무대에 올린다.

“카르멘”은, 오페라에 대해 문외한이라 해도 누구나 입으로 흥얼거릴 수 있는 멜로디로 친숙해진 작품이다.

즉 전주곡, 투우사의 노래, 하바네라, 꽃노래 등의 명곡이 오페라 전편에 넘쳐 흐른다.

이번 공연에서 주역을 맡은 루드밀라 남은 볼쇼이 오페라단의 정상급 성악가로, 카르멘 역만 41회나 맡은

바 있어 종전의 독창회에서 맛볼 수 없었던 오페라 가수로서의 진면모를 그의 뛰어난 기량을 통해 만나게 될 것이 기대된다.

또, 루드밀라 남과 함께 카르멘 주역을 맡은 메조소프라노 김학남은 한국인으로서 드물게 라 스칼라 무대에서 나비부인의 스즈끼역을 맡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악가.

한편 이번 공연은 원어인 불어로 노래하게 되어 언어와 작품성의 긴밀도를 높임과 동시에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사 번역 자막을 사용할 계획이다.

5월 12일부터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